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된다”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방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은 한국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일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캐냄으로 자기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오염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다면 공장 건설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해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 개념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 하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은이를 위함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뜻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한국장로신문 2013년 4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인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예배로 드립니다.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의 이동과 만남의 자리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919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임목사 조동수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고향 가는 사람들 ”

■ 히 11:13-16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릅니다. 예로부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사를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 사도행전의 바나바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한번 떠난 고향을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채 고단한 나그네 삶을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17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배회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 믿음으로 시작한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은 목적이 어디인지, 상황이 어떤지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첫 출발부터 오직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미지의 내일을 향해 앞길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귀중하게 쓰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히 6:14) 하나님은 미래와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친 황무지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나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의 견제와 텃세 또한 심각하여, 결국 정착을 시도한 곳이 남방이었습니다. 네게브로 불리는 남방사막은 인간 생존 한계선 이하의 지역입니다. 그는 아마도 떠난 고향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15절)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16절) 아브라함은 떠난 곳이 아닌, 언젠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참 고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천국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16절) 하나님은 힘겨운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땅의 삶도 보람 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51: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5(시 12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3(83)...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히 11:13-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고향가는 사람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42(340)...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40:1-2 인 도 자
 찬 송 266(200) 다 합 께
 기 도 오윤걸 집사
 성 경 행 4:1-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오직 예수로만” ... 설 교 자
 * 찬 송 191(427)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김미영 권사 II부: 나기태 권사
 성 경 행 4:23-3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위기를 이기는 헌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 결 혼
- 김범석 군(11교구 김하림 성도, 정은미 성도의 아들)과 김고는 양(1교구 김영준 장로, 이안선 권사의 딸) / 9월 25일(토) 오후 12시 콘래드 서울 3층 그랜드볼룸(02-6137-7000) / 5,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08명	391명	1,999명	481명	2,263명

편견의 위기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자기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병도 고쳤고 전도도 했으며 기사와 이적도 행하였다. 대개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인간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편견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상대화시켜야 한다. 절대적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는 자만이 자기 상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무지나 교만에서 벗어나야 편견의 위기에서 피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신관을 이해 못한 희랍인들은 그에게 독배를 들게 했다.

자기 교만의 담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시인하고 그 앞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때에 인간적인 편견은 사라지게 되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오해는 뿌리를 뽑히게 될 것이다.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약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